

전주 항공대대 이전 착공 주민 반발

전주시가 도도동 주민들과 인근 김제시 주민들의 반발에도 항공대대 이전사업 착공식을 강행하다 지역민들의 저항에 막혀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전주시는 8일 오전 9시 항공대대 이전사업 건설 부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뜰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주시의 이같은 계획은 항공대대가 이전하는 도도동 주민과 인근 김제시 백구, 익산시 춘포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갈등을 빚었다.

항공대대 이전 부지인 전주 도도동과 인접한 김제 백구, 익산 춘포지역 주민들은 오전 7시부터 착공식 현장에 불러 들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김제 백구·익산 춘포지역 주민 점검 농성 돌입 지역민과 불성실한 협의·독단적 강행 부메랑

땅에 항공대대가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며 공사현장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에 반대하는 도도동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공사현장 입구에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를 가로 막고 연좌농성에 들어가 착공식을 막아냈다.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던 공사현장에서 농성에 들어간 주민들은 "전주시가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밀어붙이고 있

다"며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삶의 터전에 주민 동의도 없이 항공대대가 들어오는 것을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반대 연합비대위 국창원 사무국장은 "이곳 주민들은 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공모, 성과가 없을 경우 도도동 이전을 전제로 상생방안을 논의 하자고 제안했는데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이 지연되면 예코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 초래한다

는 자기들만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있는 이곳 주민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주시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행정에 분노를 느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항공대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에는 이진식 김제시장과 국민의당 김종희(김제·부안) 국회의원도 동참해 힘을 보탤다.

공사현장을 찾은 이진식 김제시장은 "전주시가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항공대대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상생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항공대대가 들어오는 것을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항공대대와 인접한 김제 백구, 익산 춘포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전주시와 국방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종희 의원도 "지역 국회의원과 뜻을 모아 전주시가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항공대대 이전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항공대대 이전사업 착공식을 무산시키고 연좌농성을 벌인 주민들은 전주시와 국방부의 이름이 내걸린 모형을 만들어 화형식을 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중단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 차량의 현장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은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당초 지난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도도동과 인접한 김제시 백구면, 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의 반발로 차일피일 뒤로 밀려왔다.

전주시는 더는 공사를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 착수를 시도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LH 전북본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3일~17일까지 신청 접수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50세대를 추가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해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가구에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순위별로 모집하며, 기간 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6월 1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1순위 미달 시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50%이하(4인기준 269만6000원)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최종 입주자는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LH와 동호 선정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LH 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주택과 주택행정팀(063-281-2198)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10대 회장 남관우 의원 선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보람 함께배움'은 8일 제10대 후반기 원 구성에 앞서 남관우 의원을 연구단체 회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의정보람 함께배움은 이날 제2차 간담회에서 회장 선출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의정보람 함께배움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정장을 위해 취약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주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강화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문화의집 정책 재검토를”

이경신 전주시의원, 5분 발언서 주장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사진)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의 집 운영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초기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의집은 현재 진북문화의집을 제외한 네 곳은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간문화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유류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은 동아리 형태로 전환하면서 비용은 무효로 돌아와서 자체적으로 유류 강사를 초빙해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초기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운영에 전문성이 없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각 시설별 연간 9000만원 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며 "문화의집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0년 11월 2일 제정, 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2년 4월 5일에 제정됐다"며 "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조례 제정과 행정적 뒷받침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내연녀 감금 폭행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내연녀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전주시내에서 내연녀 B씨의 머리와 배, 어깨를 등산용 스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B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도내 인터넷 거래 사기 하루 평균 8건 발생

전북지역에서도 인터넷 거래 사기가 하루 평균 8건 넘게 발생해 인터넷 쇼핑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인터넷 거래사기범죄는 3049건이 발생, 2763명을 검거했다.

올해도 4월까지 인터넷 거래 사기는 1011건이 발생해 작년 대비 33% 수준에 이르렀고 있으며 하루 8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거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점점 지능적으로 발달하는 범죄 수법의 진화를 꼽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기 피해를 찾아 비인증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한다는 데 있다.

인터넷 거래사기 범죄자들은 이런 좀 더 싼 가격을 찾는 구매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매물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유혹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인터넷 거래 사기로 경찰에 검거된 조모(31)씨는 중고 사이트에 "SK노트3 화이트 공기계 팝니다"는 글을 허위로 작성하고 연락한 피해자 A(30·여)씨에게 14만원을 입금 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57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씨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판매 광고 글을 올린 SK노트3의 중고품 최저가는 16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으나 피해자들은 조씨가 제시한 가격이 시세보다 싸자 선풍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안진수기자

새벽시간 주택 침입

여성속 훔친 40대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심야에 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2)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에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 서랍에서 여성 팬티 7점(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주택의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해 속옷을 훔치려다 마침 이사를 위해 짐들이 포장돼있어 속옷을 훔치지 못하자 재차 같은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속옷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안진수 기자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